

함글함글

하나님의 선교를 세우는 가정 롬 10:15 고전 9:16 행 1:8
2023년 주님의교회 표어



471
2023.8.27.

오늘의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_ 로마서 12:15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 | | |
|-----|-------------|-----|-----------------|---|----------------|----|---------------|
| 2-3 | 하나님의 선교 책소개 | 4 | 거리의천사들 / 농촌교회봉사 | 8 | 하임찬양대 사역소개 | 10 | 교회사용설명서(청소년순) |
| 3 | 너나들이부 수련회 | 5-7 | 청년부 여름수련회 후기 | 9 | 정신청소년포럼 / 교사일기 | 11 | 십자말씀이(느헤미야) |



아이들 마음 속에 기억될 유아숲

유아숲 아이들의 마음에 주님의교회 유아숲은 어떤 곳으로 기억되고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자리 잡으면 좋을까?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유아숲 캐릭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라는 푸른 숲속에 언제나 나를 반겨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나와 친구, 앞치마를 두른 유아숲 선생님과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동물 친구들도 함께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유아숲 아이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아이들로 자라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따뜻한 빛 가운데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가길 소망하는 마음을 그림에 담았습니다.

유아숲 미취학 아이들에게는 형상화된 이미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유아숲 대표 그림과 함께 말씀 속 절기 그림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림을 활용한 절기 교재와 굿즈 등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윤경 목사 / 유아숲

하나님의 선교 책소개 시리즈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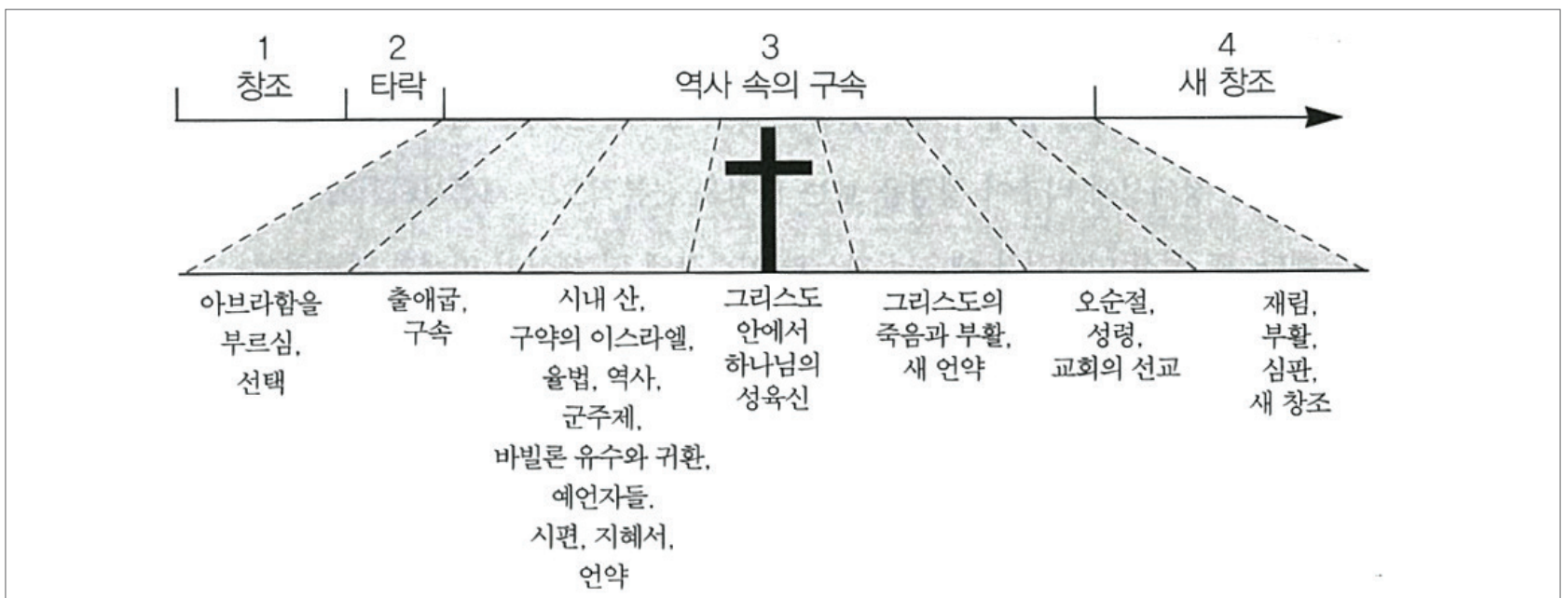
자신이 속한 그 이야기를 아는 백성

MIT 슬론 경영대학원 교수인 피터센게는 그의 책『학습하는 조직』에서 시스템 사고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오래가는 공동체는 조직이 가진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며, 배워가고,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그러하고, 기업이 그러하고, 교회도 그러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로 서있는 개인이 내가 속한 숲과 생태계와 세상을 알 때에 내 주어진 자리에서의 역할을 더 뚜렷이 알 수 있고,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고, 공동체가 지향하는 나라의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교회는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있을까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회가 가지는 큰 그림에 대해 ‘나아갈 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고전10:31)이며, 우리의 미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막1:15, 눅4:43, 마6:33)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교회 성도는 공동체의 비전과 미션을 알고서 지금 우리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장차 그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기까지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의 책『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의 2장 ‘자신이 속한 그 이야기를 아는 백성’에서 바로 이러한 **시스템 사고를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은 단순히 마태복음28:19-20에서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대위임령을 주셨는지 그들은 자신이 속한 이야기를 알았다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과 거기에 담긴 하나님 나라와 뜻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달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공유하고서 자신들의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고민과 필요와 상황에 따라 쓰여진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지속할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성경의 큰 이야기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이야기가 담겨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무엇이고 오늘날 나는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성경적 큰 그림의 사고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채 선교사역에만 열심만 내는 현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세계 선교에 큰 열심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적 계시의 원대한 전망에 대해 심히 무지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와 그 이야기가 만들어 내는 세계관, 그리고 그 세계관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요구 및 그 세계관이 우리 앞에 제사하는 소망으로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위가 형성될 때까지 이런 본문들을 깊이 연구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지 못한다.”(40p)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스스로를 돌아보는 테스트를 해봅시다. 1) 성경의 큰 이야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야기에서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2) 우리는 선교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선교가 나타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교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1)과 2) 두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성경의 큰 그림에 관해 고민을 많이 해보지 못했고, 선교에 관해 다소 협의적 의미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선교 및 성경적 큰 그림 개념에 대해서는 지난 함줄함울 469호 책소개 시리즈①을 보시길 바랍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자신이 속한 이야기’, ‘성경의 큰그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리를 합니다. 그림과 함께 그의 글을 읽어 보겠습니다.



1.창조 : 성경은 단순히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심판 날에 살아남는 방법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다. 성경은 창조에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난다. 따라서 우리의 선교적 성경신학 역시 이 위대한 시작과 끝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창조를 통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우주는 무엇인가? 또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성경이 제공하는 대답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세계에서의 선교를 이해하는 데 깊은 함의를 지닌다.

2.타락 :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은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다(창3-11장).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죽음을 경험한다. 영광스러운 진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만들어 낸 문제의 모든 차원을 다루는 복음을 준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는 그분의 창조 세계 전체에서 악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교 역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복음만큼 그 범위가 포괄적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선교 책소개 시리즈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②

3. 구속 :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세계를 포기하거나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속하기도 선택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는 사람과 사건들을 통해 역사 안에서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하셨다. 이 웅대한 이야기의 모든 부분이 전체 이야기에 독특하게 기여하지만, 이 선 위에 표시된 부분들 전체를 하나의 근본적인 통일체, 곧 하나님의 단일하고 위대한 구원 행위로 볼 필요가 있다.

4. 새 창조 :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우리가 역사 속의 구속이라 일컬었던 성경 이야기의 한 부분에 대해 대단원의 막을 내릴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의 요점(하나님의 모든 창조세계의 구속과 갱신=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이 궁극적으로 완성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것이다. 성경은 심판 날로 끝나지 않는다. 정화하는 심판의 불과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반하는 모든 것을 파멸시키는 것을 넘어서, 의와 평화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모든 나라에서 구속받은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는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제안하는 성경적 선교신학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큰 그림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고 있던 이야기였으며, 그들은 이 이야기(성경)를 신뢰했고, 그 안에서 자신들이 담당할 역할이 있다는 점을 확신했기에 세상에 나가서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 우리가 그 일부에 참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선교는 그 웅대한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보장하신 이야기의 절정에 이를 때까지 함께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함줄함울

너나들이부 여름수련회

마음의 장벽 허물다

너나들이 신앙공동체에 처음 발을 들이는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하는 이야기가 있다. 특별한 사람들이 모이는 특수한 신앙공동체라는 것이다. 본 교회의 다른 신앙공동체와는 구성원이 다르고 공동체의 성격이 다르다. 남북한 청년들이 함께하고, 20대의 탈북청년부터 70대의 멘토 성도님이 함께하고, 각자의 마음이 열리기까지, 특히 탈북청년이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문은 고리가 문밖에 있지만 탈북청년들의 마음의 문고리는 너무나 깊숙이 마음속에 감추어져서 그들이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주님은 일찍이 “마음의 장벽”을 말씀하셨다. “볼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요한계시록 3: 20).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는 주제는 “더 알아가기”(골2:1-3)로 정하였다. 청년들과 멘토, 청년과 청년, 멘토와 멘토, 자신과 자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을 여기에 초점을 두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2022년 첫 여름수련회는 청년들의 아르바이트를 고려하여 당일로 진행하였다. 출발 시부터 차량정체로 도로에서 5시간을 허비하고 수련회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점심시간이 되었고, 시간이 촉박하여 그렇게 감동적인 수련회가 되지 못하였다. 올해 당초 계획은 청년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교회에서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청년들의 기억에 남는, 몸과 마음이 부딪치는, 대화와 소통의, 그리고 늘 위축된 생활에서 벗어나 단 하루라도 자유함을 주어야 한다”는 강한 음성이 들려왔다. 우리는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 전부를 보시는 하나님께 계획, 일정, 결과를 맡기고 진행하였다. 이번 수련회가 실패할 경우, 그것은 우리의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실패일 것이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그래서 수련회 장소선정, 프로그램 작성, 찬양, 식단선정, 차량 배정 등 준비를 모두 청년들에게 일임하였다. 이제 그들도 멘토의 계획에 따르는 태움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선택과 결정으로 행사주관의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다. 평소에 교회 잘 나오지 않는 청년들의 마음까지 움직이어서 청년들의 숫자가 멘토들의 숫자를 능가하는 많은 청년들, 멘토, 장로님들이 참석하였다. 여는 예배 후 점심식사는 용문사 유명한 맛집에서 천하제일의 진미를 풍성하게 맛보게 해주셨고, 광탄리 유원지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 숙소에 도착하여 BBQ 저녁식사, 서로 알아가는 게임, 기도회, 모두들 감탄하는 캠프파이어 등 마음의 벽을 허물어가는 하나 되는 시간들이었다. 집사님, 권사님들의 정성으로 만든 저녁식사, 서로 알아가는 게임의 파안대소, 기도회의 감동으로 청년들은 울었고, 캠프파이어는 모두의 마음의 장벽을 녹였다. 청년들은 특히 이렇게 감동적인 수련회를 준비해준 멘토들에게 감사하였고, 멘토들은 청년들을 격려하고 안아주었다. 참으로 하나가 되는 아름답고, 즐거운, 일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갖는 시간들이었다.

이번 수련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한 번 경험하였다.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다. 둘째, 청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실하고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셋째, 그들이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한 알의 겨자씨가 되어 미래의 통일선교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끝으로 우리가 사막에 물을 주어 삭이 돌아나도록 헌신하고 봉사하며 자로 택해졌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십자가의 중심으로 걸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라 생각한다.

김기연 안수집사 / 너나들이 부장



하나님의 선교 실천
거리의 천사들

지극히 작은 내 형제

모두가 잠들어 가는 시간, 노숙인 분들도 잠자리로 찾아들 시간, 26년 동안 거리의 노숙인 분들을 섬기고 계신 안기성 목사님과 사모님의 인도를 받아 국내선교위원회분들과 함께 약간은 두렵고 긴장된 마음으로 남대문 지하도 노숙인분들을 찾아뵈었다.

하루의 냉담한 시선과 배고프고 외로움에 지친 심신을 잠시나마 누일 수 있는 지하도의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이 그분들의 잠자리였다. 바닥에 상자를 깔고 덮을 것 하나 변변히 없이, 하루 종일 들고 다녔을 비닐가방을 얼굴가리개 삼아 알코올 기운으로 힘겹게 잠을 청하고들 계셨다.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숙생활을 하신 분들은 공공근로 일자리 등을 통해 고시원 같은 곳으로 거처를 옮겨 자립을 도와 드리기가 수월하지만, 고아원이나 교도소 출신의 노숙자 분들은 오랜 세월 거리의 생활로 인해 심신의 미약이 깊어져 그마저도 자립이 어렵다는 목사님의 설명을 들었다.

직접 쓴 편지와 함께 간식이 든 비닐봉지를 그분들 곁에 놓을 때 처음으로 이런 봉사를 한 나로서는 생각보다 정절한 그분들의 모습에 약간은 놀라웠다. 입고 있는 의복은 심하게 더럽거나 헤지지 않았고 짐작과는 다르게 그다지 쇠약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름대로의 하루의 루틴에 따라 생활하고 계신 듯 보였다. 그 순간 꾸준히 그분들을 도와주고 계신 여러 봉사자들의 손길이 느껴졌다. 보이지 않는 사랑의 마음들이 존경스러웠고 이제껏 이분들을 철저히 외면하며 살아왔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얼마 전 교회 주방봉사를 하던 중 노숙인 한 분이 굳이 반찬그릇을 직접 들고 오셔서 김치를 담아 달라고 하셨던 적이 있었다. 김치를 좀 넉넉히 퍼드리는데 조금만 담으라고 버럭 말씀하시며 테이블로 가 국수를 드셨던 기억이 났다.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테이블마다 놓여있는 김치를 다른 사람들이 함께 쓰는 집게로 집기가 조심스러웠던 것은 아니셨을까? 김치를 많이 가져가는 것이 염치없고 미안하셨던 것은 아니셨을까? 비록 거리생활로 인해 거칠고 통명스러워졌지만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위신마저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은 아니셨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 적이 있었다. 목사님에 의하면 그분들은 봉사자들이 직접 손으로 그리고 쓴 편지들을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계신다고 하신다. 분명 여러 봉사자들의 나지막한 발소리들로 인해 잠이 깨셨을 것인데도 여전히 눈을 감은 채, 그분들이 누워 잠잠히 기다린 것은 우리가 나누어 주는 간식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주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의 온기였을 것 이리라 여겨진다. ‘거리의 천사들’봉사를 갔던 6월 14일, 그날 새벽예배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46절이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_ 마태복음 25:35~36, 40

때에 따라 말씀을 주시고 뜻을 나타내시는 주님은 그날도 지극히 작은 내 형제를 찾아 나를 보여주라고 말씀하셨다. 그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해본다. 이 땅에서는 지치고 힘든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나라에서는 천국 소망을 품고 사는 거리의 천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본다. 최현영 집사



하나님의 선교 실천
농촌교회봉사

영월 조전교회에서 함께 한 옥수수따기

여름 한복판의 찌는 듯한 무더위와 그리고 장맛비가 올까? 하는 걱정도 많았지만 날씨 걱정은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7월 20일 목요일에 24명 교우들의 동행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참가하는 농어촌 교회 방문과 봉사였습니다. 처음으로 옥수수밭에 들어가 옥수수를 따보았는데 사진을 정리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옥수수 앞에서 나는 냄새가 손에 배어있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 교회 방문은 처음이어서 매우 설렘이었습니다. 하루 전까지 장마가 계속되다가 우리 교회가 방문한 날부터 아주 맑고 더운 날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른 아침 7시에 출발해 계획대로 9시 30분에 도착하여 농촌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들의 애환이 가슴으로 느껴졌습니다. 무인고도처럼 적막하기 그지없는 시골교회에 사람들이 북적대니 그곳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 같았습니다. 막 삶은 맛있는 옥수수과 전, 단호박죽, 도토리묵으로 간식을 하고 오늘 일하게 될 옥수수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잠깐의 안내를 듣고 말벌을 잡을 때 얼굴에 쓰는 양파망을 옥수수 밭에 스치지 않게 쓰고 평생 처음 옥수수 따기 작업을 했습니다. 시골 할머니들이 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였지만 신기한 호기심에서인지 일이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상생하는 법을 알려주심을 피부로 느끼며 그분들은 우리 방문이 오래전부터 마치 부활절 혹은 성탄절만큼 설렘으로 맞이하고 기다린 것 같아서 함께 손잡아 주는 것 하나만으로 서로에게 기쁨과 위로, 평강이 옥수수밭처럼 오래오래 머물러 있기를 기도하며 돌아왔습니다. 신영백 안수집사



청년부
여름수련회

우리가 기억하는 청년부 여름수련회

8월 11일(금)부터 13일(주일)까지 치악산 황둔 청소년 수련원에서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청년부 리더십들과 프로그램을 담당한 청년들의 짧은 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함글함글

66 임원단

제 계획에 없던 올해 임원단 사역은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낀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 임원단이 마지막으로 함께 준비하는 수련회라 마음이 찡했습니다. 수고하는 손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과 공동체의 하나됨을 느꼈습니다. 양수민 / 청년부 23기

임원단으로서 마지막 수련회라 감회가 새롭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섬겨준 임원단, 스태프, 조장, 사역팀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허인범 / 청년부 23기

지난 겨울 수련회에선 주님께서 저를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면 이번 여름 수련회에선 주님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님의 일에 사용하실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귀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강현서 / 청년부 30기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시간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전에는 몰랐던 많은 섬김의 손길, 교역자분들의 헌신에 더 감사하게 되었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의 모습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받은 사랑을 넉넉히 흘려보내는 청년의 때를 살겠습니다♥

이은혜 / 청년부 26기

이번 여름 수련회는 지난 겨울 수련회보다 먼 장소에서 진행되어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주님이 인도하시어 수련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 동안 채워진 은혜로 일상도 주님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연찬 / 청년부 16기

좀 더 여유가 생겨서인지 나의 섬김보다 조장과 스태프와 사역팀, 그리고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임원단으로 섬기도록 초청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더 속속들이 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더 사랑하게 되어버렸다, 청년부!

양지수 / 청년부 26기

물보라 임원단으로서 준비한 마지막 수련회는 섬기는 자리에 있음이 오직 기쁨으로 다가온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넘쳐흐르는 은혜의 물보라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교회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수희 / 청년부 28기

여름 수련회도 후발대로 참석하여 많이 아쉽습니다. 아침 산책 꼭 하고 싶었으나 못 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 은혜 언니와 수희와의 짧은 저녁 산책은 소소한 행복이었다는 것 전합니다! 이번 집회는 특히 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의 은혜가 지속되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홍주희 / 청년부 27기



공동체 프로그램 스태프

청년부 수련회에서는 처음으로 섬기게 돼서 제게 더욱 특별한 수련회였습니다. 한 달간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수련회가 끝나는 순간까지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청년부 공동체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요한 / 청년부 27기

공동체 프로그램에 스태프로 참여하여 준비하면서 주제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잘 참여해 주었고, 즐겁게 마무리되어 감사합니다. 앞으로 청년부를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대환 / 청년부 17기

수련회에서 공동체 프로그램 스태프와 워십팀으로 섬기면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지친 영과 육을 수련회를 통해 다시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삶의 자리에서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최예은 / 청년부 33기

코로나 종식 이후 두 번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전보다 더 귀한 수련회 시간이라고 생각한 덕분인지 그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수련회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김홍준 / 청년부 25기

이번 여름수련회 덕분에 청년부 지체들과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산책 시간과 조모임 시간 때의 나눔도 즐거웠고, 집회 후에 함께 보드게임 등을 하면서 다른 조의 지체들과도 알게 되어서 기뻐했습니다.

김아현 / 청년부 28기

수련회를 통해 조별 모임, 공동체 프로그램을 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친해질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3일간의 집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응원해 주는 청년부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최지원 / 청년부 29기

열정적인 집회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청년들과 교제하며 공동체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사랑을 가득 채우고 흘려보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청년부가 되도록 귀한 마음으로 준비한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김좌겸 / 청년부 30기

이번이 성인이 되고 나서 두 번째 수련회였습니다. 겨울보다는 여름에 참여해 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잔잔하며 즐겁고 또 서로에 대해 좀 더 깊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이성우 / 청년부 25기

귀한 시간 내어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섬겨주신 스태프분들 덕분에 일본일초가 알차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함도 있었을 텐데 넉넉한 마음으로 즐겨주신 청년들도 감사합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채운 사랑 흘려보내는 진짜 수련회를 시작해 보아요! 파이팅

홍유선 / 청년부 27기



유관부서 사역팀 팀장

마음 편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무엇이든 사랑할 준비가 된 내가 되기를 바라고, 세상을 아름다운 시선으로 보기를 기도했습니다. 끝없는 사랑을 받고 있고,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수련회였습니다.

이예지 / 청년부 31기(방송팀 팀장)

콘텐츠크리에이팅팀은 수련회의 홍보영상과 후기영상의 제작을 맡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사역임에도 보람과 감사함이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이유라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처럼 영상을 통해 사랑을 전할 수 있었고,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박경찬 / 청년부 23기(콘텐츠크리에이팅팀 팀장)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안에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 주제처럼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현태 / 청년부 25기(찬양팀 팀장)

이번 청년부 여름수련회는 'FLOVER :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라는 주제처럼 청년부 공동체가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차고 흘러넘치는 경험을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희성 / 청년부 27기(워십팀 팀장)

사진으로 본 청년부 공동체는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각 가정과 공동체, 나아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이번 하계수련회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를 교회 밖으로 나눌 차례입니다.

배상훈 / 청년부 16기(사진팀 팀장)

66 조장

지난겨울에 이어 대면으로 진행된 여름수련회, 주제와 같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채우고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여드린 찬양, 눈물과 회개로 드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문주찬 / 청년부 30기

조장이라는 섬김의 자리에서 참여한 수련회였지만 여느 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고, 가장 힘 있는 청년의 시기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데 그 힘을 쏟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느꼈던 수련회였다.

홍진희 / 청년부 28기

안녕하세요. 10조 조장으로 섬겼던 29기 심환희입니다. 교회에서 처음으로 서보는 리더의 자리라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조장이라는 무게를 지고 섬김으로 다가가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었는데, 조원들 모두가 서로에게 사랑을 채워주고 흘려보내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심환희 / 청년부 29기

이번 수련회를 통해 수많은 청년들이 즐겁게 놀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서 공동체가 꾸려짐이 얼마나 기쁜지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꾸며간 수련회여서 더 기뻐합니다.

이경태 / 청년부 23기

‘주님, 21살, 뒤에서 둘째인 저를 정말 사랑하시겠다고요?’(구)조장님의 코로나 확진으로 수련회 하루 전날 기꺼이 조장으로 섬기기로 결심했지만, 그저 늘 애교쟁이 막내였던 나는 걱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격려와 기도로 이번 수련회에서 FLOVER, 낮은 자리에서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받는 기쁨을 온전히 느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오늘 남은 생각은, 은혜의 자리에 사용해 주신 주님께, 그리고 공동체의 힘을 알려준 조원들과 주님의교회 청년부에게 감사함뿐이다.

지수현 / 청년부 33기

금요 기도회로 미리 준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재밌는 책자를 통해 무겁지만은 않게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워십으로 더욱 찬양의 열기가 뜨거웠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영란 / 청년부 30기

전역하고 맞이한 첫 수련회. 조장으로 참여해서 돌아보니 더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수련회 이후 저희 청년부 모든 지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Flow over 하기를^^

김상호 / 청년부 27기

사랑하는 게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조금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섬김 덕분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문희은 / 청년부 27기

수련회라는 귀한 시간을 통해 청년들이 하나가 되고 만남과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만나는 모든 인연을 주께서 이어주시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정관 / 청년부 24기

이번 수련회는 “Flover”라는 주제로 수련회가 진행되었는데, 조장 제의를 받아 조원이 아닌 조장으로 처음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많이 부족했던 저를 잘 따라준 조원들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흘려보낼 수 있었던 은혜로운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김환 / 청년부 29기

오랜만에 맡는 조장이라 걱정되고 떨렸는데 막상 해보니 조장하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자란 조장을 조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채겨주는걸 보며 조원들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우리 1조 조원들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그대들과 함께 해서 행복했습니다♡

안윤주 / 청년부 25기

이번에 진행된 청년부 하계수련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는 수련회였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듬뿍 채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다짐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신하림 / 청년부 25기



집으로, 고향으로, 본국으로

성도여러분 하임 찬양대를 아시나요? 하임(heim)은 ‘집(고향)으로, 본국으로’를 뜻하는 독일어입니다. 천국으로 환송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올려드리는 합창대를 말합니다.

하임찬양대는 상례부 소속으로 14개 전문위원회 중 상례위원회에 소속된 천국환송예배의 찬양을 맡고 있는 부서입니다. 신형섭 장로님이 상례위원장으로 봉사하고 계시며 현재 하임찬양대는 남자 4명, 여자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임찬양대 사역은 2015년 3월에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조가대를 체계화하면서 고유자 권사가 주도하여 약 35명으로 시작하여 김예경 권사를 거쳐 현재 이해영 집사가 대장을 맡고 있으며 지휘는 안명숙 집사, 반주는 유혜경 집사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1월부터 7월 19일까지 15번의 천국환송예배에 참여하였고 매달 1, 3주 수요일 6시에 5층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과 6월에는 찬양대 워크샵과 친목모임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사역에 대한 소명과 맡겨진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조가대의 특성상 봉사의 날을 예측하기 어렵고 장례예배가 주로 새벽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지 않은 봉사이지만 모두 한결같은 마음으로 은혜받으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장례예배가 슬프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에게 믿어지지 않는 크나큰 슬픔으로 간직되는 故 주석중 집사의 장례예배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故 주석중 집사는 바쁜 의사로서의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매주 1부 호산나 찬양대원으로 그 소임을 다하였으며 故 주석중 집사의 부인인 김정명 집사 역시도 소프라노 파트장으로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6월 18일의 위로예배를 시작으로 6월 19일 입관예배, 6월 20일에는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천국환송예배를 드렸으며 생전에 고인이 즐겨 부르던 “하늘가는 밝은 길이”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이후 화장예배, 하관예배 모두 주님의교회 주관으로 류경민 목사님의 설교와 기도 하에 엄숙하게 치러졌으며, 벽제의 용미리 추모공원의 가족 봉분묘에 안치됨으로서 故 주석중 집사의 60여년 소중한 인생이 고이 잠드는 모습을 보면서 ‘나 가나안 땅 귀한성에’라는 찬양이 얼마나 소중하게 들렸던지 모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집을 벗어 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성도여러분,

하임찬양대는 더욱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으로 올려드리고자 하고자 합니다.

은혜를 부인하면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기도 제목으로 그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겸손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순종도 겸손해야, 성실도 겸손해야, 긍휼도 겸손해야, 수용성도 겸손해야 가능하다”

이경미 집사 / 하임찬양대 총무

정신학원
제9회 청소년포럼

선배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정신청소년포럼은 2019년부터 진행된 주님의교회와 정신학원의 연합사역이다. 정신청소년포럼은 사회와 개인의 삶 속에서 타인과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리더들과 사회활동을 하는 크리스천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인생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것과, 앞서 삶의 길을 걷고 있는 선배들과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넓힘으로써 오늘의 불안함과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역사 속에서 살아계셔서, 생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연 2회 진행되는 정신포럼이 지난 7월9일(금)에 오후4시, 대예배실에서 열렸다. 김효정님(정신여고 80회 동문, (주)바이오아라 대표이사)을 강사로 모시고, “Fearless(두려움 없이 세상과 맞서)”라는 주제로 진행된 포럼은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하였다. 김효정님은 인생의 선배와 어른으로서 자신이 경험한 삶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의 필요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함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을 도전하고 그들에게 충분한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었다. 강의를 듣는 청소년들의 진지한 눈빛과 그들의 고민을 담은 깊은 질문들을 들으며, 청소년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정신청소년포럼이 교회와 학교와 가정(부모와 지역사회)이 함께 청소년을 사랑하고 살리며,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울타리가 되어주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소망한다.

임경순 목사 / 청소년사역원



교사일기
영아1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영아부를 사랑합니다.

영아1부 교사 조복선입니다. 예수님을 까맣게 잊고 수십 년을 세상적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2005년 4월 4일 임파선암 판정받았을 때, 그때의 감정은 그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회개가 폭포수처럼 흐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의 반 이상 넘게 편안하게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편 145편 8절 말씀이 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크도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 긍휼의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를 기다리셨구나.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는 그 벅찬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후 지인의 소개로 주님의교회를 알게 되었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항암치료하면서 주님의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다음 해인 2006년에 새신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목적이 이끄는 삶’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역 박람회도 열렸습니다.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사역 책자를 펼쳐봤는데 새신자에 불과한 제가 할 사역이라곤 아기를 돌보는 것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영아1부 보조교사 사역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미흡하고 믿음도 적은 제게 영아부를 섬기는 일은 큰 은혜였습니다. 알기 쉽게 들려주던 목사님의 설교가 제 귀에도 쏙쏙 잘 들어왔고 말씀이 맛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영아부 교사로 섬길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순종해야겠다는 믿음으로 교사의 자리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에 아이들과 즐거운 공과 공부시간을 가지기보다 주일식 말씀 교육을 하는 제 모습이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교재 연구를 하며 말씀을 읽으며 준비해나갔습니다.

점차 영아부 아기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커져 갔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더운 날씨에도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 하늘 씨앗 아기들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어찌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그 모습을 보고 싶어 주일만 기다려졌습니다. 어느새 영아부 아가들만 바라보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아부 교사로 사역한 지 어언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때의 그 아기들이 이제는 초등, 중등부가 되어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보람되고 뿌듯한지요.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겠지요.



뒤에서 예배 준비며 간식 준비며 묵묵히 헌신하는 권사님들, 아이들 뒷바라지에 가정 살림에 바쁨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찬양 선생님, 반주자 선생님, 사랑으로 반을 이끄시는 담임선생님, 우리를 즐겁게 해주며 영아1부를 총괄하시는 부장님.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시는 이영선 전도사님. 나의 멘토이자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영아부를 사랑합니다.

조복선 집사 / 영아1부

교회사용설명서⑨

청소년을 위한 교회학교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청소년’을 “청년과 소년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찾아보니 “미성년의 젊은이들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 흔히 십 대의 젊은이를 일컫는다”는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의 정의가 가장 상식과 통념에 맞을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청소년은 이처럼 경계가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세대입니다.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성장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전환기에 있는 세대여서 저마다 자신의 세계를 찾아 방황이 시작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주님의교회 교회학교는 청소년을 연령대와 특성에 따라 몇 단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

이런 청소년들이	이 곳에서	이런 내용을 배워요
중학교 1~3학년 또는 해당 연령 청소년	중등부 팝콘트리	팝콘트리 중등부 는 중학교 1-3학년의 예배 공동체입니다. 신체적, 정서적으로 큰 변화의 과정을 맞는 중학생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을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게 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비전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기뻐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해 가는 시간입니다.
고등학교 1~3학년 또는 해당 연령 청소년	고등부 비전트리	비전트리 고등부 는 고등학생 1-3학년의 예배 공동체입니다. 신체적으로는 성인에 가까운 발달을 보이며, 정서적으로는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의 청소년으로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게 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비전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기뻐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해 가는 시간입니다.
중학교 1~3학년 또는 해당 연령 청소년	어와나 트렉	어와나 트렉 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소명을 발견해가는 중학생들의 영적 여행 과정입니다. 성경공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중에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년에 2권으로 이루어지는 핸드북을 통해 주중에 공부한 말씀을 클럽활동 시간에 토론하고 암송을 점검합니다. 토론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고의 폭을 넓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과정을 갖습니다.
고등학교 1~3학년 또는 해당 연령 청소년	어와나 저니	어와나 저니 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일년 365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토론하며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관점(perspective)을 형성하고 세상을 섬길길 원하는 고등학생들(17~19세까지의 청소년)의 3년간의 영적 여정(journey)입니다.

관리법과 주의사항

청소년은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큰 변화를 맞아 내적 갈등이 많으며, 성인이 되기 전까지 자신을 발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의 젊은이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익히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신뢰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공간인 교회학교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글함글



중등부 팝콘트리(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고등부 비전트리(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어와나 트렉



어와나 저니



중 · 고등부 '순식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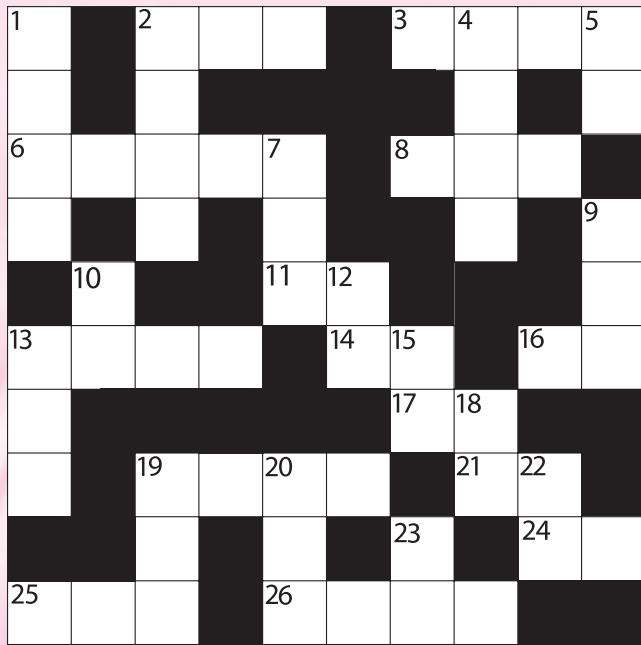
고등부 비전트리



어와나 트렉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 풀이 느헤미야 편

이번 호에는 <느헤미야>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귀환 이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과정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470호 '에스라' 편 정답



가로 힌트

2. 제사장 우리야의 아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도왔다. (느 3:4)
3. 유다 지파 바룩의 아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준 다음에 그 뜻을 해석하여 에스라를 도왔다. (느 8:7)
6. 바사 왕을 가리키는 칭호. 재위 20년에 느헤미야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했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했다. (느 2:1~18)
8. 암몬 사람. 산발랏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느 2:10).
11. 곤란한 경우나 처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 ○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느 2:17)
13.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도읍지로 지정된 도시. 바사에서 귀환한 느헤미야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벽과 성문을 중건했다. (느 3:1)
14. 믿음을 지켜야 할 대상을 등지고 저버림.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나 너희가 왕을 ○ ○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느 2:19)
16. 벼슬에 있으면서 나라의 일을 알아보는 사람. 느헤미야는 바사 왕의 술 담당 ○ ○이었다. (느 1:1)
17. 여러 나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느 9:30)
19. BC 444년 이후 유다 지방을 다스렸던 총독. 바사 왕 아닥사스다의 관원이었으나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을 중건했다. (느 1:1)
21. 일반 국민을 예수롭게 이르는 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 ○이니이다" (느 1:10)
24. 문틀에 끼워서 여닫는 문이나 창이 한 짝. "그 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 ○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느 3:1)
25. 오직 한 분이여 전지전능하신 분. 고유명칭은 '여호와(야훼)'이며 흔히 '주님'이라고 한다. (느 1:4)
26. 느디님 사람들의 조상 중 하나. 느디님 사람들은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했다. (느 7:55)

세로 힌트

1. 요아김의 아들로 느헤미야 시대의 대제사장. 예루살렘 성벽의 양문을 재건할 때 제사장들을 지휘했다. (느 13:5)
2.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느헤미야 때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인 므술람의 선조이다. (느 3:4)
4. 서남아시아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 느헤미야 때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곳 사람들도 있었다. (느 4:7)
5. 레위 사람 중 한 명.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자 백성을 위해 율법을 해석해 주었다. (느 8:7)
7.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한 다룬 사람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조상이다. (느 7:58)
9. 감람나무가 심겨진 동산. 감람나무를 재배하는 농장을 말하기도 하며, 감람산의 또 다른 명칭이기도 하다. (느 5:11)
10. 베냐민 자손으로 므술람의 아들.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에서 귀환한 제사장 중 하나이다. (느 12:7)
12. 신이나 높은 사람을 숭배함.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 ○하니라" (느 8:6)
13. 에셀의 아버지로 미스바를 다스렸던 사람.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고 예배를 인도했다. (느 8:7)
15. 품계나 신분. 등급 따위의 차례.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 ○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느 13:30)
18. 지방의 관리 책임자. 느헤미야와 스룹바벨도 이 칭호로 불렸다. (느 8:9)
19. "주어진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사람들의 지휘를 받아 성전에서 잡일을 하던 사람들이었다. (느 7:46)
20. 구약 시대의 한 지역. 여러 곳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 주요 도시로 부상했다. (느 3:7)
22. 성의 문. 느헤미야의 지도로 52일 만에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에는 12개의 이적이 있었다. (느 12:30)
23. 물건을 넣어 두는 곳. 이곳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직책이었다. (느 13:13)

지난호 세로 힌트 11번을 "방백이 백성들에게 우림과 둠임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먹지말라고 한 것(스 2:63)"으로 정정합니다.
(오류를 제보해주신 최유림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